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박 고 운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588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율성수준, 4유형 동기(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 진로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유형 동기 각각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의 경우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갖는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율성, 동기, 진로자기효능감

* 본 연구는 BK21 지원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2007-9-0028)에 의해 수행됨.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상담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흥미나 가치를 탐색하고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과 함께 진로 준비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촉진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의식이 아무리 성숙되어 있을지라도 그에 따르는 준비행동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즉 스스로 결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기울이는 행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준비행동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그러나 진로결정수준이 높더라도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은 경우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봉환, 1997).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수준은 직업탐색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수준과 취업 후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진로준비행동과 취업 후 적합도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노연희, 장재윤, 2005). 한편 진로준비행동수준에 있어서 여자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진로준

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손은령, 손진희, 2005). 그리고 대학 4학년 1학기 때의 진로미결정은 직업탐색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4학년 1학기 때의 직업탐색행동은 4학년 2학기 때의 구직성과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직업탐색행동은 진로미결정과 구직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이처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독립적인 효과를 보인다. 특히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은 서로 상관이 높기는 하지만, 진로발달 과정에서는 인지 및 태도적인 측면이 성숙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준비행동수준도 높은 것은 아니다. Bandura (1977)는 특정 행동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이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는 반면에, 높은 자기효능감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Betz & Hackett, 2006). 이러한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행동 뿐 만 아니라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은 자기도식에 기반을 둔 동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로준비행동의 주요 변인으로 알려진 동기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동기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비일관성의 원인을 탐색하고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사려된다.

진로결정자율성이란 진로 결정 및 준비 과

정에서 개인이 지각한 자율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성 수준은 자기결정성이론에 기초하여(Deci & Ryan, 2002) 자율성이 높은 2개의 동기(내적동기와 확인된 조절)와 자율성이 낮은 2개의 동기(부과된 조절과 외적 조절)를 각각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다(Guay, 2005). 진로결정자율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자율성 수준에 따라 나눈 4유형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동기를 단순히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이원화하기 보다는, 외적 동기를 자율성 수준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눈다(Ryan & Deci, 2000). 기존의 이분법적인 방법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서로 다른 영역의 요인으로 간주한 반면에,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서로 동일한 영역의 단일 요인으로 보고 이들을 자율성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의 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내적 동기 뿐 아니라 외적 동기에도 자율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율성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외적 동기들이 연속선상에 위치적으로 위치한다고 본다(김아영, 오순애, 2001). 자율성 수준에 따라 외적 동기는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로 나뉜다. 외적 조절은 외부의 보상이나 강제를 이유로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부과된 조절은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부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조절은 특정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동기로, 확인된 조절의 경우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내면화 시킨 동기유형이기 때문에 외적 동기에 속한다(Deci & Ryan, 2002). 한편 내적 동기는 행동이나 과제 그 자

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한 동기로서 가장 자율성이 높은 동기유형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만이 자율적인 동기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내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외적인 요인들의 개입이 있는 동기일지라도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확인된 조절의 경우 외적 동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율성 수준이 높은 동기라는 점에서 내적 동기와 함께 자율성 수준이 높은 동기로 분류된다. 반대로 외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을 이유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율성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본다(Deci & Ryan, 2002). 이러한 4유형 동기 수준을 합산하여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Guay(2003)의 연구에서처럼 내적 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김아영(2002)이 제안하듯 $2 \times$ 내적 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2 \times$ 외적 조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개인이 가장 잘 기능하기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충족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Deci & Ryan, 2002). 즉 개인은 안녕감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의 충족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관계성의 욕구란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관계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유능성의 욕구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능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의 욕구란 행동의 시작, 지속, 조절 과정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즉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

느냐에 따라 내적 동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적 주장이다.

Guay(2003)의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각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지각된 자율성 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대해 각각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자율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주장한 한주옥(2004)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미결정 혹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김봉환, 1997; 노연희, 장재운,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미결정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와, 진로결정/미결정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입증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자율성 수준에 따른 4유형 동기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 및 4유형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진로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한 개념으로, 주어진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etz & Hackett, 2006).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이란 특정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

행, 지속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 과정이 새로운 행동의 습득과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특정 행동 영역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며,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실패를 능력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성공 지향적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도 작용한다(Betz & Hackett, 2006). 이러한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행동 뿐 아니라 동기와의 밀접한 관련을 나타낸다(김아영, 1998).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나 신념이라고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이론은 자기도식에 기반을 둔 동기이론의 하나로서 볼 수도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어려움을 끈기 있게 이겨내는 수준과, 실패 후에 대처를 하는 수준과 같은 동기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2004).

Betz와 Hackett은 1980년대부터 Bandura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발달 연구에 적용해왔다. 처음에 이들은 여성들이 수학에 대해서 보이는 자신감 부족에 대한 연구에 자기효능감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여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성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부족을 느끼는 행동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전반적인 진로결정 및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

도를 개발하였다(Betz & Vuyten, 1997).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 진로준비행동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진로자기효능감은 그 자체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지적 요인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임은미, 이명숙, 2003; 한주옥, 2004).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맥락 특수적인 것이며, 기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이고 변화가능한 특성이라는 점에서, 진로 상담에서 특정 진로 맥락에 대한 내담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실제 진로상담과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증가할 것이며,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4유형 동기(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달라질 것이며,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역시 달라질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Y대학교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2006년 6월과 7월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수업 시간 내에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였을 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588개였다. 여성 241명(40.99%), 남성 355명(60.37%)이었으며, 성별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2명 이었다.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80명, 2학년이 239명, 3학년이 96명, 4학년이 80명이었으며, 학년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3명 이었다.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35세였고, 연령 평균은 21.88세였다.

측정도구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에 김형균(2002)이 2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봉환(1997)의 검사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교재, 장비, 자격증 등)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라는 세 가지의 차원을 통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김형균(2002)은 최근 인터넷 진로 정보사이트가 많이 생겨났고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 등 진로상담센터들이 활성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2개 문항(“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을 추가하였으며, 이 경우 신뢰도는 김봉환(1997)의 연구의 Cronbach's α .84보다 높게 나타났다(김형균, 2002). 본 연구에서 18문항의 내적일치도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각 준비행동을 1(“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유형 동기 측정도구

본 연구조사대상자들의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uay(2005)가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척도(CDMA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ous Scale)를 한주옥(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주옥(2004)은 Guay(2001; 한주옥, 2004)가 미출판 상태로 개발중인 척도를 번역하였으며, 이는 Guay(2005)가 1년 후 공식 출판한 척도와 동일하다.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은 4개 동기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이것은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율성 수준에 따라 나눈 4유형 동기인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와 동일하다(Guay, 2005). 진로결정자율성척도는 8개의 행동에 대한 4개의 이유(동기)를 묻는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2)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3) 학교 프로그램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내게 주어진 대안들을 알아본다,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5) 진로 목표와 부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알아본다, (6)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알아본다, (7) 진로 선택에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다, (8) 자신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진로를 알아본다. 또한 행동에 대한 4개의 이유(동기)를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A)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외적 조절), (B)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낄 것 같아서이다(부과된 조절), (C)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확인된 조절), (D)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내적 동기). 각 문항은 1점에서 7점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Guay(2005)와 한주옥(2004) 모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율성척도를 개발, 번역하였다.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Guay(2005)의 연구에는 .91-.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척도의 내적일치 신뢰도 수준은 .89였으며, 외적조절 문항들은 .94, 부과된 조절 문항들은 .91, 확인된 조절 문항들은 .87, 내적 동기 문항들은 .90이었다.

진로결정자율성수준 측정도구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자율성척도(한주옥, 2004)에서 산출한 4유형 동기를 이용하여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자율성 지수는 (내적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의 방식으로 산출하였다(Guay, 2003). 자율성 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tz와 Vu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직업 정보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영역

에 대한 자신감을 0에서 9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척도를 번역하였으며, 25문항의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Betz와 Voyten(1997)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92이었다.

분석방법

SPSS 12.0을 사용하여,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진로준비행동,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전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그 결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r=.41, p<.01$),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6, p=.126$). 한편 4유형 동기(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는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다.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4유형 동기(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 각각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외적 조절, 부과된

표 1. 진로준비행동,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율성 사이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M	SD
1. 진로준비행동	-							40.17	10.09
2. 진로자기효능감	.41**	-						143.69	30.78
유형동기									
3. 외적 조절	.15**	.06	-					22.14	11.82
4. 부과된 조절	.17**	-.07	.46**	-				27.62	11.71
5. 확인된 조절	.22**	.31**	-.16**	.09*	-			45.07	7.62
6. 내적 동기	.36**	.41**	.11**	-.00	.33**	-		34.48	10.25
7. 진로결정자율성수준	.06	.27**	-.70**	-.67**	.48**	.47**	-	3.73	3.08

* $p<.05$, ** $p<.01$

표 2. 4유형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β
1. 외적 조절	.06	.07
2. 부과된 조절	.12**	.13**
3. 확인된 조절	.15**	.12**
4. 내적 동기	.31***	.31***

모형 요약: $R^2 = .17$, $adj-R^2 = .16$, $\Delta R^2 = .17$,
 $F = 28.67$, $df = 4$, $p < .001$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 $p < .05$, ** $p < .01$, *** $p < .001$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회귀 모형은 유의미하였다($R^2 = .17$, $adj-R^2 = .16$, $\Delta R^2 = .17$, $F = 28.67$, $df = 4$, $p < .001$). 그러나 외적 조절의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적 동기의 예측력이 가장 컸으며($\beta = .31$, $p < .001$), 그 다음으로 부과된 조절과 확인된 조절 순서로 예측력이 크게 나타났다(부과된 조절; $\beta = .13$, $p < .01$, 확인된 조절; $\beta = .12$, $p < .01$).

통계적 유의도가 낮은 변수인 외적 조절을 제외하고 회귀식을 얻기 위해 단계별(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내적 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세 개의 변인을 넣은 회귀식의 예측력이 가장 컸지만, 그러나 내적동기와 부과된 조절로 이루어진 회귀식도 유의미하였으며, 내적 동기만으로도 진로준비행동의 예측이 유의미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예측 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 한 후에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인 외적 조절, 부과

표 3. 내적 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	$R^2(adj-R^2)$	ΔR^2	F	β (B)
1. 내적 동기	.13(.13)	.13	82.20***	.36 (.35)
2. 내적 동기 부과된 조절	.16(.15)	.03	52.71***	.36 (.35) .17 (.15)
3. 내적 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17(.16)	.01	37.41***	.32 (.32) .17 (.14) .10 (.13)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 $p < .05$, ** $p < .01$, *** $p < .001$

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 중, 가정된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내적 동기($r=.41, p<.01$)와 확인된 조절($r=.31, p<.01$)이었다. 또한 이 두 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내적 동기; $r=.36, p<.01$, 확인된 조절; $r=.22, p<.01$), 매개변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 사이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r=.41, p<.01$). 따라서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 변인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 변인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적 동기의 경우, 내적 동기만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내적 동기의 β 값이 .35 이었지만, 내적 동기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내

적 동기의 β 값이 .22 이었다(표 4). 즉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의 설명량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을 통제 후 늘어났으므로, 진로자기효능감은 내적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을 통제 후에도 예측 변인인 내적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자기효능감을 거치지 않고, 내적 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갖는 효과도 있음을 나타내므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동기는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12.5%를 설명하였으며, 내적 동기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준비행동을 8.8% 설명하였다.

한편 확인된 조절의 경우, 확인된 조절만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확인된 조절의 β 값이

표 4. 내적 동기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

예언변인	R^2 (adj- R^2)	ΔR^2	F	β (B)
1. 내적 동기	.13 (.12)	.13	77.91***	.35 (.35)
2. 내적 동기 진로 자기효능감	.21 (.21)	.09	73.84***	.22 (.22) .33 (.11)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 $p<.05$, ** $p<.01$, *** $p<.001$

표 5. 확인된 조절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

예언변인	R^2 (adj- R^2)	ΔR^2	F	β (B)
1. 확인된 조절	.05 (.05)	.05	27.51***	.22 (.29)
2. 확인된 조절 진로 자기효능감	.18 (.18)	.13	59.98***	.10 (.13) .38 (.12)

종속변인: 진로준비행동
* $p<.05$, ** $p<.01$, *** $p<.001$

.22 이었지만, 확인된 조절과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회귀식에서는 확인된 조절의 β 값이 .10 이었다(표 5). 즉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확인된 조절의 설명량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을 통제한 후 늘어났으므로, 진로자기효능감은 확인된 조절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을 통제한 후에도 예측 변인인 확인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자기효능감을 거치지 않고, 확인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갖는 효과도 있음을 나타내므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된 조절은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4.8%를 설명하였으며, 확인된 조절과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준비행동을 13.2%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으며,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4 유형 동기인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는 각각 진로준비행동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중 가정된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은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었으므로, 이 두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내적 동기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와 확인된 조절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모두 진로자기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4유형 동기인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 각각은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미결정 사이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Guay, 2003), 또한 진로결정/미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유의한 관계도 나타났다(손은령, 손진희,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내적동기; $r=.36, p<.01$, 확인된 조절; $r=.22, p<.01$),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델의 설명량은 크지 않았다. 내적 동기는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12.5%를 설명하였으며, 내적 동기와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준비행동의 8.8%를 설명하였다. 확인된 조절은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4.8%를 설명하였으며, 확인된 조절과 진로자기효능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준비행동의 13.2%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진로결정자율성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자율성 변인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이 Y대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Y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율성 수준이 낮은 동기인 외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 수준이 높아도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특성은 다른 대학생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방식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척도를 개발한 Guay(2003)의 원래 방식대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을 내적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의 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내적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 모두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율성 수준에 상관없이 어떤 동기든 간에 높은 동기 수준은 진로준비행동의 높은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내적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의 방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진로결정자율성이라는 변인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김아영(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동기와 외적 조절 변인에 가중치를 두어, $(2 \times \text{내적 동기} + \text{확인된 조절} - \text{부과된 조절} - 2 \times \text{외적 조절})$ 의 대안적인 방식으로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김아영(2002)의 대안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이라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있어서, 4유형 동기를 단순히 더하고 빼는 방식이 아니라,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

여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4유형 동기인 내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적 조절 변인 모두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가정된 매개변인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었다. 결과적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변인은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을 자율성 수준이 높은 동기로 보고, 부과된 조절과 외적 조절은 자율성 수준이 낮은 동기로 본다(Deci & Rya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 변인에서만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자율성 수준이 높은 동기일수록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외적 조절)”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부과된 조절)” 하는 행동은 스스로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매개되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확인된 조절)” 혹은 “즐겁기 때문에(내적 동기)” 하는 행동은 스스로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러한 점은 진로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내적으로 동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증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Bandura(1977)가 제안한 것처럼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상담 뿐 아니라 집단상담의 형태 등을 통해 내담자의 진로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진로준비행동이나 내적 동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이은진, 2001).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 체계를 진로 영역에 적용시킨 변인으로, 최근에(Guay, 2003) 개발되어 계속 수정, 발전되고 있는 변인이다. 즉 4유형 동기인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는 이미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체계화되고 검증된 변인이지만, 이 4유형 동기들을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진로결정자율성이라는 새로운 변인은 아직 검증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uay(2003)가 처음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진로결정자율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내적동기 + 확인된 조절 - 부과된 조절 - 외적 조절의 방식으로 각 동기를 단순히 합하고 뺀 방식이었지만, 이 경우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율성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있어서,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라는 4유형 동기를 어떻게 합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행동과 동기 사이의 관계에서 유능성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는 했지만, 보다 다양한 인지적/태도적 변인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각 동기의 설명량이 4%에서 13% 수준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행동과 동기 사이의 관계에서 유능성 신념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인지적/태도적 변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유형동기의

독립성 정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한 한계점을 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가 고려되지 않고,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대안으로 변인들간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겠다.

참고문헌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아영 (1998).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 자기효능감 이론을 중심으로 -. 교육심리연구, 12(1), 105-128.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13(1), 1-38.
- 김아영, 오순애 (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형균 (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진주대학교.
- 노연희, 장재운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23-43.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분석. *학생상담연구(전주대학교 카운슬링 센터)*, 1, 101-113.
-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와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23.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e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etz, N. E., & Hackett. G. (2006). Career self-efficacy: Back to the fu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3-11.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Y: Rochester
- Guay, F.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77-97.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f-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원 고 접 수 일 : 2007. 1. 19

수정원고접수일 : 2007. 3. 15

게 재 결 정 일 : 2007. 4. 20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Gwoon Park

Ki 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Career Self-Efficacy.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four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factors (Intrinsic Motiv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and External Regul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Career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included 588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were not correlated.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External Regul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Self-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areer preparation ar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lso are offer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self-efficacy